

김 “광주출신이 경쟁력”...추 “21년 호남 맘며느리”...이 “文 대리인 뽑아선 안돼”

# 당권주자들 8만 호남 표심 잡기 사활

더민주 화순 합동연설회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이개호 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지난 13일 광주와 전북에 이어 16일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정견발표회에서 호남 민심 잡기에 전력을 쏟았다.

이권의 심장인 호남의 상징성도 있지만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지역 권리당원이 7만9000여명으로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호남 민심이 수도권 등 타지역 호남 출신 대의원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었다.

이날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상곤 후보는 “새누리당도 호남출신을 당 대표로 뽑았는데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후폭풍이 수도권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며 광주 출신인 자신을 지지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걸 후보는 “호남의 마음이 문을 닫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문재인이 대리인을 뽑는 전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호남의 반문정서를 겨냥했다.

“호남은 당의 뿌리다”고 연설을 시작한 추미애 후보는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다”며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지긋지긋한 분열을 추풍으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상곤, 추미애, 이종걸 후보가 16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기 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날려 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는 당권 주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상곤 후보는 “1971년 김대중 후보가 처음 나온 선거부터 지켜보고 성원했다”며 “후보와 계파가 아닌 당 중심의 선거, 민생 정당으로 외연 확대, 호남 복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대선 주자 대부분이 비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광주 출신인) 제가 제일 (당 대표에)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광주에서 판사를 하다가 김

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입당원서를 쓰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흔들리는 더민주를 곳곳이 지켜온 민주 종가의 맘며느리, 호남의 맘며느리 추미애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해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정치 인생 내내 원칙을 지키면서 당 안팎의 불의한 권력과 싸워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지역 민심을 감안한 듯 당권 주자들은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열린 더민주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이개호 의원이 추대됐다.

이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4·13총선에서 호남민심은 정권교체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의 모든 결정을 당원이 할 수 있도록 당원 주권을 확립하고 생활정치와 민생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이정현 대표, 광주서 은사 조문

“만선부(萬善簿) 품고 다녀”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3일 지역구인 순천을 찾던 중 고교은사인 이기순(79)씨의 광주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는 16일 “살레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기순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일을 제쳐 놓고 마지막 비행기로 내려가서 조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 살레시오고(16회) 출신으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동기동창이다.

이 대표는 이 선생님에 대해 “그때 나에게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보인다면서 웅변을 배우라고 권유했던 분으로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라

며 “이 선생님은 ‘평생 1만 가지 선한 일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며 만선부(萬善簿)를 쓰라고 하셨다. 지금도 선비의 깨끗함을 지녔던 선생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지난 2014년 10월16일에도 살레시오은사인 이탈리아 출신 원선오 신부의 국회 방문을 친구인 우 총장과 함께 반갑게 맞이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남수단에서 방한해 남수단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원선부에게 이 대표는 “등교할 때마다 교장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손을 모두 잡아주셨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형제애를 강조하셨던 기억도 있다”고 회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기요금 개편 내일 첫 회의

당·정 TF 출범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8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현 당 대표 취임과 함께 정책현안으로 떠오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의원·정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김상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과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김시호 부시장이 참여하며, 그밖에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인사들도 TF 명단에 포함됐다.

TF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하며, 크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서별관회의 청문회 최·안 출석 안하면 추경 불가”

중인 채택 줄다리기...與 “망신주기 안돼”

여야가 오는 2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증인에 세우느냐를 놓고서 양보 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결정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 두 야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상임위의 간사 간 논의에서 증인채택 문제가 제대로 진전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당은 합의대로 제대 증인채택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합의된 점을 거론하면서 “22일 추경예산 통과를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에게 왜 국책은행에 세금이 들어가는지 따질 책임이 국회에 있다”면서 “왜 이토록 부실이 계속 축적됐고 정부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몇몇 특정 인물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로 가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자질없는 추경 처리에 만전을 가하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오는 22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민주 ‘강령 갈등’ 여진

‘노동자’ 단어 원상 복구 공감대...일각 “전체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만든 강령 개정안 초안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삭제된데 따른 당내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삭제하지 말자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는 모양새지만, 이번 기회에 강령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노선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민주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강령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비대위원들의 경우 ‘노동자’ 문구 삭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비대위원은 16일 “노동자 단어를 삭제하면 자칫 노동자 계층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꼭 삭제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개호 비대위원도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노동자라는 단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날 “노동자·서민·중산층 등을 모두 강령에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종걸 후보 측 관계자는 “강령 전체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